

아름다운 선택

마가복음 10:46-52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돈을 물 쓰듯 하거나 돈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번 돈을 다 쓰고 그만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쏟아 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귀한 것이 흔한 것이 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은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나 '홍수나면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은혜의 홍수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의 고갈로 인하여 여전히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많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도 정말 가볍게 됩니다.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며, 주신 은혜를 자꾸 쏟으면, 있던 은혜도 거두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려 있던 은혜의 문도 자주 닫히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월 초에 가졌던 심령부흥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겪으시고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들과 맹인 거지 바디매오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의 믿음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맹인 거지 한 사람, 우리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교회 안에 참여한 그 무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예배를 봅니다. 그 무리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 나의 찬송, 나의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곧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무리로, 무더기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지로 살아온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때야 말로 때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매오는 돈을 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바디매오는 보기를 구한 것입니다. 47,48 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디매오는 거지로 살다가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디매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열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이 부르짖음은 바디매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매오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신앙의 열정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신앙고백의 열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르는 신앙의 고백이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나의 메시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주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열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생활의 열정입니다. 바디매오는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입니다. 그는 길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아름다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0 절에 보면 "맹인이 겔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겔옷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와 같은 큰 통치마를 겔옷으로 입었습니다. 이 겔옷은 밤에는 침구로,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은 덩고 밤은 쌀쌀하기 때문에 겔옷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런 필수품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51 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바디매오가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무엇을 보기 원했던 것일까요? 원문 성경에는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매오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좋으니 자기의 평생소원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52 절). 그 다음 그의 행동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겔옷을 버려두고, 거지의 생활을 버려두고, 동냥으로 돈 버는 것도 버려두고, 옛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나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그의 소원도 책임지셨고, 그의 치유도, 그의 영원한 삶도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좇는 사람에게 주님도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극복하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수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관상 있고 관상 위에 심상 있고, 심상 위에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간은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매오'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실로 신앙의 힘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자신에게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매오는 맹인에다가 거지였습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매오가 거지가 된 데에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에 생활 능력이 없어졌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기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바디매오의 위대성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있습니다. 실패자의 대부분은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났기 때문에,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줄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등등의 핑계로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환경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압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냈습니다. 의학자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생동안 약 3-5%만 사용할 뿐 나머지는 사장시킨 채 인생을 끝낸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운명을 바꾸었던 바디매오와 같이 여러분의 운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운명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쉽게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무응답의 응답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소유를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고로 어떤 일이나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고 프린스턴 대학의 실천신학교수인 도널드 캡스(Donald Capps)는 예수님의 의지의 포기라고 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의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17 절 이하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 깨닫지 못하면서도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는 죄, 의를 행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습니다. 실속은 없는데 아직도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 벌거벗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라는 것입니다. 착각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착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 자기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체력단련으로 잘 만들어 진 제 자신의 몸매만을 자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전과 달리 좀 찌뿌듯하니까 운동을 게을리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점점 더 열심히 역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역기를 들다가 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보니 암이 벌써 등뼈에까지 전이가 되어 마침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속은 썩어 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안심하고 착각합니다. 알맹이는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도 전에 보이던 껍데기가 아직 성하다고, 그저 잘 되겠지 하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영적 세계는 온통 다 뒤섞여 엉망인데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착각합니까? 사람들이 왜 진실을 보지 못 합니까? “뭔가가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나, 미움이나, 거짓이 눈을 가리면, 진실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다 악하고 교활하게 보입니다. 거짓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던 예수님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다가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모든 탐욕과 시기, 미움과 억울함, 편견과 잘못된 경험의 덩개들을 다 걷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진실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열망하며, 주 앞에 겸손해 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